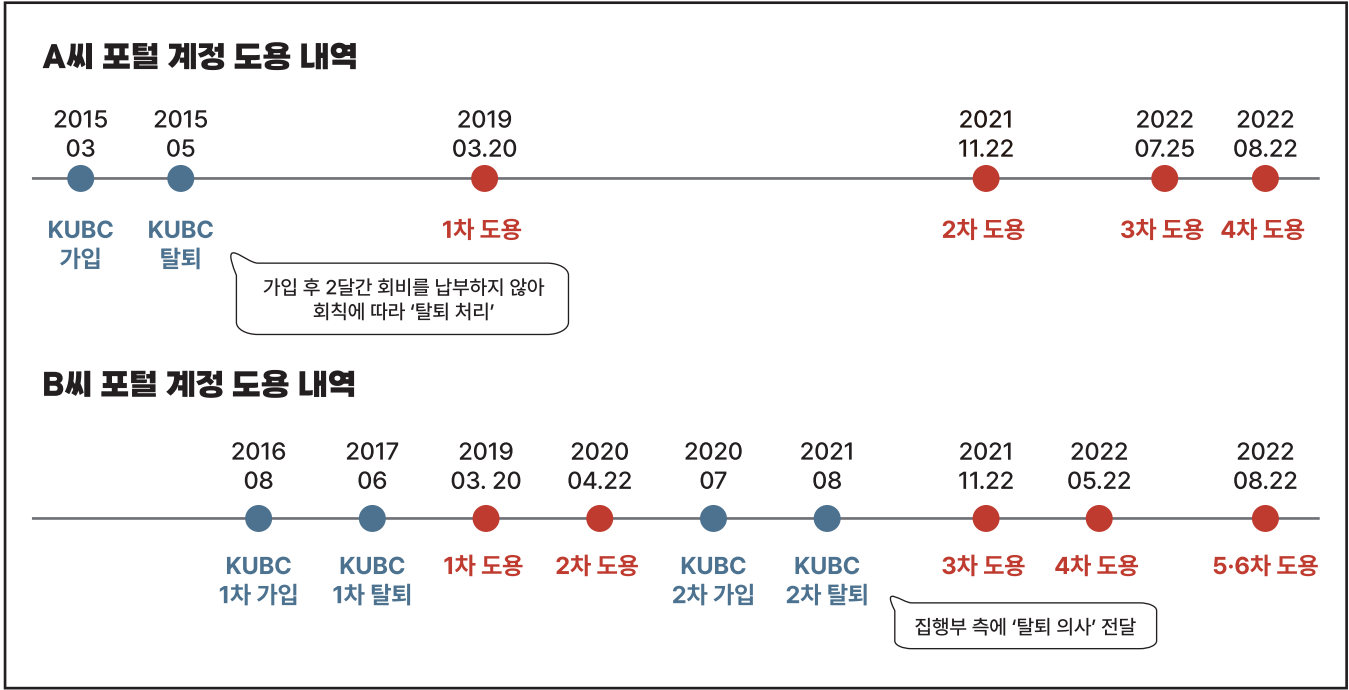


KUBC 포털 계정 도용 사태

체육시설 이용하려고 ‘탈퇴 회원’ 계정 건드렸다



KUBC의 탈퇴 회원 포털 계정 도용 내역

“이용 당시 사전 동의 없었다”
타 동아리 모임에도 계정 이용해
“정보 파기의무 위반은 도용”

최근 A씨는 포털(KUPID)에서 이상한 일을 겪었다. 사물함 신청 내역을 확인하려다 실수로 ‘체육시설’ 항목을 눌렀는데 신청하지도 않은 체육시설 예약내역을 발견한 것이다. A씨는 자신의 포털 계정이 체육동아리 시설예약에 도용됐다는 내용으로 학내 커뮤니티에 두 차례 글을 올렸다. A씨가 동아리명을 밝히지 않았음에도 ‘KUBC 사과문’이란 제목의 게시글이 게재됐다.

탈퇴 회원 계정으로 시설 예약
본교 체육시설을 예약하기 위해서는 포털 계정이 필요하다. 분기별로 신청 모임을 개

설하고 해당 모임이 회원 수를 충족하면, 관리자의 승인을 통해 시설예약 권한을 얻는다. 매달 셋째 주 월요일부터 3일간 모임의 대표자만 예약을 할 수 있다. 하나의 체육시설에 인당 1개 모임만 개설·가입할 수 있어 예약 권한을 얻은 계정이 많을수록 체육시설예약에 유리하다.

교내 배드민턴 중앙동아리 KUBC(회장=이효준)는 시설예약 기간이 되면 집행부가 회원들을 대상으로 예약 참여 가능 여부를 조사했다. 예약은 모임 대표자 계정으로 신청할 수 있기에, 대표자 회원 중 직접 예약에 참여하기 힘든 회원에겐 따로 연락해 포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받았다. 예약에 참여할 수 있는 회원은 본인 계정을 비롯해 집행부로부터 받은 타인의 대표자 계정까지 사용했다. 이번 달 화정체육관 시설예약도 동일 방식으로 이뤄졌다. 2008년부터 2017년까지 홈페이지에 시설예약을 위한 예약

배정표를 올려 서로 계정을 공유했다. KUBC 측은 탈퇴 회원의 계정정보를 동의 없이 모임 개설 및 가입에 사용해 왔다. A씨는 2015년 3월 KUBC에 가입했으나 활동하지 않았고, 가입비를 한 차례 납부한 것 외에 월회비도 내지 않았다. 2개월 연속 회비를 미납하면 제명된다는 KUBC 세칙에 따라 A씨는 제명됐다. 하지만 KUBC는 A씨의 포털 계정을 2019년, 2021년, 2022년에 걸쳐 총 네 번 시설예약 모임 가입에 사용했다. 도용 사실을 깨달은 A씨는 가입된 모임의 대표자에게 연락했지만, 해당 대표자 역시 KUBC 탈퇴 회원으로 자신의 계정이 도용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B씨도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총 여섯 차례 계정을 도용당했다. B씨는 가입과 탈퇴를 반복하며 몇 차례 활동에 참여했지만, 동의 없이 계정이 사용된 당시에는 탈퇴한 상태였다. 그는 2020년 재가입 이후 2021년 8

월 집행부에 탈퇴를 요청했다. A씨와 B씨의 계정은 9월 예약 기간인 지난달 22일까지도 사용됐다. 지난 6월까지 KUBC에서 활동한 C씨는 “집행부가 예약 당일 타인의 계정을 넘겨주며 누구 것인지 알려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KUBC 집행부는 도용 계정을 다른 동아리의 모임 가입에 쓰기도 했다. 녹지 운동장과 보조경기장은 다른 시설이라 한 계정으로 모두 예약할 수 있다. 보조경기장을 사용하는 동아리와 협약을 맺고 서로 모임의 인원을 채워줬다. 이 과정에서 KUBC 집행부는 A씨와 B씨 계정에 접속해 타 동아리 시설예약 모임에 가입했다. 당시 교류했던 동아리 회장 D씨는 “우리 부원이 모임을 개설하면, KUBC 측에서 모임에 가입해줬다”며 “회원명을 확인할 수 없어 도용 계정인지 알 수 없었다”고 전했다.

“징계위 결과 따라 동아리 제명 가능”
KUBC는 A씨의 두 번째 게시글이 올라온 지 3시간 만에 입장문을 발표했다. 해당 계정들의 사용 기간, 동의 여부 등 사실관계를 파악해 피해 보상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이었다.

다음날 KUBC 회장단은 학내 커뮤니티에 사과문을 올렸다. 회장단은 시설예약을 위해 KUBC 회원들의 포털 계정을 수집해 저장·관리해왔다고 밝혔다. 또한 부회장 업무를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계정정보를 사용할 때 사전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지도해야 했으나 그러지 못했다”고 사과했다. 현 회장단은 인수인계 과정에서 계정을 ‘사용해도 괜찮다’고 전달받아 착오가 생겼다고 해명했다. A씨가 동아리에 가입했을 당시인 2015년 1학기 부회장은 A씨에게 연락해 ‘계정 삭제가 누락됐다’고 설명했다. 현 회장단은 관련 정보를 파기하고 ‘회원들의 계정을 관리·저장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피해자들은 학내 동아리에서 발생한 사안인 만큼 최대한 본교 동아리연합회(회장=이용재, 동연)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전했다. 이용재 동연 회장은 “무단 도용이 사실로 밝혀지면, 징계위원회를 꾸려 조사에 나서겠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최대 ‘제명 안건 회부’까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동연 차원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피해자들은 법적 대응까지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법률사무소 엘리트 이재혁 변호사는 “동아리가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 대상인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면 동아리를 탈퇴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하는 데 그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단일 회원이 탈퇴했음에도 개인정보를 계속 이용했다면, ‘동의한 목적 외 이용’ 또는 ‘동의 없는 이용’에 해당할 수 있어 처벌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한편, 본지는 KUBC 회장단에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학내 커뮤니티에 올린 사과문 외에 말씀드릴 내용이 없다”는 답을 받았다.

글 | 전수현·조경준 기자 press@
인포그래픽 | 김연수 기자 lotus@
이미지출처 | KUBC홈페이지

3월 31일 화요일 18:00~19:00 박우철(정우철) A 경필구(김필구) B 박우철(정우철) 19:00~20:00 임하예(임하예) A 김지현(김지현) B 임하예(임하예) 20:00~21:00 최동열(최동열) A 김지현(김지현) B 최동열(최동열) 21:00~22:00 장인엽(장인엽) A 서희룡(한승룡) B 장인엽(장인엽)
-----담당자별 정리----- 이를 밑에 써있는 내용은 다음을 의미합니다. (코트위치 - 사용해야 하는 아이디 - 날짜 및 시간)
아래 주소 클릭하면 담당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kubc.net/notice/20240331

KUBC 홈페이지에 게재된 예약배정표에는 각 회원이 누구의 계정으로 예약해야 하는지 적혀있다. A(B)라고 했을 때, 회원 B가 A의 계정으로 예약을 진행한다. 배정표 중 일부에는 ‘화정 체육관 예약 아이디’ 게시글로 연결되는 링크가 첨부됐다.

제54대 고려대학교 아남민국 정기국회 ‘대의제의 위선: 국회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대표성의 위기, 국회의 변화를 논하다

제54대 ‘고려대학교 아남민국 정기국회’가 지난 1일 인촌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아남민국 정기국회는 국내 정치 사안을 주제로 정경대 학생들이 매년 기획하는 학술극이다. 이번 정기국회의 주제는 ‘대의제의 위선: 국회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였다. 전차미 제54대 아남민국 모의국회 준비위원장은 “대의민주주의에서 선거라는 대표자 선출 장치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며 “대표자와 피 대표자의 간극이 벌어지고 있는 국회에 대안을 제시하고자 했다”고 기획 의도를 설명했다.

이번 학술극은 시민 3명이 제시한 3개의 의제를 놓고, ‘더들어봅시당’, ‘국민의립’, ‘정이만땅’이 입법 활동을 하는 내용이었다. 의제는 △낙태죄 대체 입법(형법 및 모자보건법 개정안) △포괄적 차별금지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중대재해처벌법)이었다.

먼저 의원총회를 진행한 더들어봅시당은 정치공학적 접근만 고수하며 표를 얻기 위한 당론 채택에 급급했다. 박명수 의원이 “5인 미만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지 않지만, 산업재해 사망 사고의 40%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어났다”며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주장했다. 강형욱 더들어봅시당 대표는 “틀린 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제정한 법을 6개월 만에 갈아엎으면 무능하다는 여론이 퍼진다”며 거부했다.

국민의립 의원총회에서는 오은영 의원이 “노동자와 경영주 중 우리를 더 후원해 주는 경영주를 대표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그는 중대재해 예방 기준을 명시하고 그 기준을 준수한 사업주에겐 처벌을 감경하자고 주



국민의립 장천 의원(가운데)이 아남민국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을 소개하고 있다.

장했다. 꽃받침 국민의립 대표는 “빠른 회의 진행을 위해 논의는 이쯤 하고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겠습니다”라고 서울무 의원의 이견 제시를 막았다. 이어진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3가지 법안을 심사했다.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은 국민의립 안이 통과됐고, 차별금지법은 추후 공청회를 여는 조건으로 계류됐다. 형법 및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양당 대표 모두 ‘이것을 지금 논의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며 계류됐다. 의석이 6석뿐인 정이만땅의 주력 법안은 모두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정이만땅은 더들어봅시당과 협력해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부결시켰다. 시민들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및 본회의 결과에 분노하며 국회의 대표성과 직접 정치 참여 방법에 관해 논했다. 금준표 성소수자 행동연대 대표는 “차별금지법 공청회에 한 번 가보려고 해”라며 국회에 직접 본인의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시민 제시는

의원 1명의 소개 의견서를 제출해 대기 기간 없이 국회에 바로 청원을 전달하는 ‘의원 소개 청원’도 선보였다. 국은 국회의원 회식 자리에서 “국민은 멍청한 족속이다”, “국민은 다 개·돼지야” 등 막말이 나오며 절정에 달았다. 분노한 시민들은 “국회의원 장난질한 선거법을 개정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다. 위기를 느낀 국회가 △중·대선거구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방형 정당 명부제를 채택한 선거법으로 개정하며 학술극은 마무리됐다. 강형욱 역의 김대원(정경대 정외22) 씨도 “현 정치 상황을 비판하고 지적할 수 있어 좋았다”고 전했다. 서울무역을 맡은 주태은(정경대 정외22) 씨는 “아남민국의 울림이 국회에 닿아 더 나은 정치로 가는 발판이 됐으면 좋겠다”고 공언 소감을 밝혔다. 글 | 전수현 기자 iamssoo@ 사진 | 한다빈 기자 binsoffthewall@

천신일 세종그룹 회장 명예 학위 수여

〈명예 경영학 박사〉

천신일(정치외교학과 61학번) 세종그룹 회장이 본교 명예 경영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본교는 제철화학 공장 국산화를 통해 우리나라 경제 발전을 이끌고 문화사업 및 체육진흥 분야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한 점과 제28대, 제29대 교우회장을 역임하며 학교 발전에 공헌한 공로를 인정해 천 회장에게 명예 박사 학위를 수여한다고 밝혔다. 학위 수여식은 지난 1일 본교 백주년기념관에서 열렸다. 천신일 회장은 “고려대학교는 늘 가슴 속에서 도전 의식과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원동력이고 ‘자유, 정의, 진리’ 정신은 평생 자신의 마음을 지켜준 자랑스런 신념이자 가치”라고 전했다. 천신일 회장은 1961년 본교 정치외교학과에 입학해 1965년 졸업 후 한국 최초의 석탄 화학 회사인 제철화학을 설립하고 공장을 국산화했다. 1978년 일본으로 반출되려는 석조유물을 모두 사입해 유출을 방지했고



2001년 일본에서 석조물 70점을 환수하는 등 문화재 보호에도 앞장섰다. 본교에는 제2 정경관 건립기금, 고려대 박물관 발전기금, 교우회 장학기금 등을 기부한 바 있다. 글 | 김동우 기자 good@ 사진제공 | 커뮤니케이션팀

본교, SISW와 인재 양성 MOU 체결

본교와 지멘스 인더스트리 소프트웨어(SISW)가 ‘배터리-스마트팩토리’ 인재 양성을 위한 기술 및 교육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지난 1일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SISW는 본교와 SISW 기반의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에 대해 협력한다. SISW는 본교에 △3차원 설계 및 가공 소프트웨어 도구 △1차원 및 3차원 다중물리해석 및 테스트 소프트웨어 도구 △3차원 가상 제조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 도구 등을 제공한다. 또한 SISW는 지멘스 디지털 배지를 비롯한 소프트웨어 교육 인증을 발행하게 된다. 협약식에서 정진택 총장은 “이번 MOU를

통해 앞으로 양 기관이 상호 교류를 더욱 공고히 하여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동반자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병준 SISW 코리아 사장은 “산학 연결을 통해 차세대 배터리-스마트팩토리 산업에 기여하는 인재로 양성될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지원하겠다”고 했다. 김인엽 기자 dzlight@

사령	
■ 의원 면직	
기자	홍정우
(이상 2022년 9월 1일자)	